

가랑비에 옷젓듯이



鄭 信 模

〈서울신문 경제부기자〉

옛 말이 아니더라도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빨라 대한석유협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았다. 기자가 동자부에 처음 출입하기 시작한 80년대 초 협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바쁘게 움직이던 모습이 옛그제 같은데 역시 세월은 덧없는 셈이다.

당시와 비교하면 국내 석유산업의 발전도 괄목상대할 만하다. 그동안 국내 소비량이 2배 이상 늘어난데다가 몇개사가 탈황시설을 가동하거나 곧 준공할 예정인가하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석유와 가스의 비축시설도 제법 갖췄으며 송유관 사업도 활발하게 진척돼 조만간 일부 구간이 개통될 전망이다. 선진국들만 쓰는 것으로 알았던 천연가스도 상당히 보급됐다.

한국석유개발공사와 민간기업들이 세계 각지의 산유국에 진출해서 석유를 찾아내느라 맘을 홀리고 있고 그중 일부는 성공을 거두어 소량이나마 해외에서

개발한 석유도 들어오고 있다.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기습적으로 닥친 2차 석유위기의 파고에 휘말려 나라경제가 휘청거리던 때를 생각하면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대부분 잊혀진 일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만저만 다급하지 않았다. 석유의 무기화에 성공한 산유국의 콧대 때문에 돈을 주고도 기름을 사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동자부에는 국제 사기꾼들의 발걸음이 부산해졌다. 국내 유력층이나 기관들의 소개로 나타난 이들은 자신들이 산유국의 실력자들을 잘 알기 때문에 커미션만 준다면 기름은 얼마든지 사오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조국을 위해 미력이나마 헌신하겠다는 헛소리를 섞은 이들의 사기극은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다.

석유 재고가 일주일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달랑 달랑해지자 급기야는 동자부장관이 아무런 사전 교섭도 없이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산유국 순방에 나섰다. 나라의 위신이고 장관의 체면이고 앞뒀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제발 한국에 기름을 팔아달라는 구걸을 서슴치 않았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산유국에서 기름을 싣고 국내로 향해 중인 유조선의 불량까지 비축량으로 발표할 정도였다.

석유협회가 태어나던 무렵의 정황이 대충 이러했다. 이때에 비해 여러가지 사정이 훨씬 나아진 것이 사실이나 우리의 처지는 여전하다. 국내 대륙붕에서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남아있기는 해도 석유수입국의 종속적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쓰라린 처지를 실감한 뒤 석유에 관한 국내의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국내 석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절약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석유협회가 발족됐다. 국민들에게 고약하게 비친 정유업

계의 이미지를 개선해 보자는 숨은 뜻도 있었다.

2차 석유위기 당시 정유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결코 좋은 편이 아니었다. 요즘은 이동통신을 일컬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지만 당시는 정유업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라는 비아냥도 있었다. 예나 이제나 이런 말들은 매스컴이 지어낸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철석같은 진실로 믿고 있다.

이런 부정적 시각은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었다. 기자가 몸담고 있는 매스컴이 과장과 침소봉대를 밥먹듯하는 폐습을 지닌게 사실이지만 정유업에 대한 비판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요즘 흔한 말로 국민정서에 딱 맞는 비판이기도 했다.

2차 석유위기의 와중인 80년 1월 29일 정부는 기름값을 평균 59.43% 올렸다. 바로 전해인 79년에도 비슷한 율의 유가인상이 있었다.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달리는 마당에서 산유국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원유값을 올려대니 우리 소비자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 공식가격외에 웃돈까지 땀땀하게 요구하는게 산유국들의 일반적인 행태였다.

정부도 교육지책으로 장차 오를 원유가를 국내 가격에 미리 반영하는 일까지 생겼다. 예컨대 현 식점의 인상요인은 30% 뿐이지만 조만간 산유국들이 원유가를 올릴 것에 대비 미리 50%쯤 올리는 것이다. 한두달 간격으로 국내 유가를 짚꼬짚꼬 올리니 한꺼번에 대폭 올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이를 가불인상이라고들 했다.

유가인상의 불가피함을 이해한다 해도 소비자들로서는 연속적으로 오르는 기름값에 울화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일부 언론들은 「정부가 발표한 59.43%의 인상을 가운데 7% 포인트의 근거가 없다」며 「의혹이 있다」고 대문짝처럼 써갈겼다. 뒤늦게 인상률의 세부 내역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기자들은 자신들의 무지가 점연쩍어 정부와 정유사를 두들겨 패는 강도를 훨씬 높였다. 정치적 혼란기여서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지지도 않았다.

특히 정유사의 지배자인 외국의 합작선이 우리 정부로부터 보장받은 갖가지 특혜가 눈에가시로 찍혔다. 불평등계약을 통해 그들이 움켜쥔 이익보장·과

실송금 보장·원유구입권등 단물이 생기는 권리가 모두 못마땅했다. 황금알이니 하는 따위의 비판은 이런 특혜를 지칭한 것이었다. 정유사들을 두들겨 패는 것은 애국으로 치부할 정도였다.

사리를 따지자면 그같은 특혜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제공한 것이다. 자본도 기술도 없는 처지에서 이른바 「세븐시스터즈」로 불리는 실력자를 모셔다 국내에 정유사를 세우자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런 대가를 치른 덕에 정유사의 주인은 오늘날 모두 내국인으로 바뀌었다. 정유업의 국산화를 위해 지불한 레슨비였던 셈이다.

그러나 화김에 무엇 한다고 이런 사정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독자들 역시 이처럼 합리적인 설명을 수용했을지도 의문이다.

협회 창립 12주년이었어도 정유업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다. 오늘도 동자부 기자들이 정유업계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기사를 쓰면 편집국 내에서 핀잔을 받는다. 황금알을 낳는 업종이 자금난을 겪는다니 웃기지 말라는 식이다. 기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라면 일반 국민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정유업계는 석유협회를 통해 이런 편견을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한다. 두어달 전인가 TV에서 석유협회의 공익광고를 보고 놀란 적이 있다. 석유소비 증가율이 세계 최고이니 아껴쓰자는 내용이었는데 모처럼 정유업계가 할 일을 한다는 느낌이였다.

홍보를 얘기할 때마다 인용되는 말이였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는듯 모르는듯 꾸준한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의 너리에 특정한 이미지가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늦었더라도 이러한 노력은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 합작선의 지배를 받으며 성장한 정유업계의 사고방식은 다른 업종에 비해 너무나 미국식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쪽의 장점을 취하면서 감정을 앞세우는 한국식 사고방식에도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구체적인 일은 석유협회가 맡으면 된다. 석유협회가 홍보의 첨병이 되어 하는 것이다. 가랑비라도 오래 맞으면 속옷까지 흠뻑 젖게 마련이다. 정유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의무가 있다. 물론 선입견과 편견에 가득한 매스컴도 자성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